

## 제 5회 『인간관계론』\_데일 카네기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21년 2월 7일 경남 창원시  
올탑 스테디카페 석전동

### 4부

#### 2장

###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

찰스 슈와브가 어느 날 정오 무렵 자신의 철강 공장을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과 마주쳤다.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는 '금연'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슈와브가 그 표지를 가리키며 "저거 못 읽으십니까?"라고 말했을까? 오, 아니다. 슈와브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서 하나하나 시가를 나누어 주며 말했다. "이 시가는 밖에 나가 피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슈와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주고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마저 주었다. 직원들은 슈와브를 존경하게 되었다.

1887년 3월 8일, 감동적인 설교를 하던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사망했다. 다음 일요일에 리먼 애벗은 비처가 떠나 공석이 된 교회에서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애벗은 설교문을 쓰고, 또 쓰고, 다듬었다. 작가 플로베르라도 그렇게 꼼꼼하지 못했을 것이다. 글을 다 쓴 애벗은 자신의 아내에게 글을 읽어 주었다. 글로 쓴 연설문이 대부분 그렇듯이 형편없었다.

판단력이 부족한 아내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리먼, 끔찍해요. 이 글은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은 잠들어 버릴 거예요. 무슨 백과사전 읽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해

놓고 이렇게 밖에 못 쓰나요? 제발, 인간처럼 말할 수 없나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나요? 이런 걸 읽고 있으면 창피할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만일 정말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이제 당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애봇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걸 『노스 아메리칸 리뷰』에 보내면 정말 좋은 글이라고만 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글을 칭찬하면서도 설교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교묘하게 암시했던 것이다. 리먼 애봇도 알아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쓴 원고는 찢어 버리고, 메모도 참고하지 않고 설교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2 :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 □ 교재 외 수업

1. 테슬라 리콜 가능성(초기모델에 관하여)
2. 한국 여성의 혼전임신에 관한 연구(논문) - 혼전임신여성의 결혼 후 이혼율이 35%에 달한다. 혼전출산여성 경우의 이혼율은 200% 이상으로 높았다.
3.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다.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국화. 중국은 미국의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과 잘 지내지 못하면 무역 길이 막힐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해저터널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4. AR, VR 시장이 각광 받는 상황에서 배터리 산업 또한 조명되고 있다. AR, VR 구현하기 위해서 배터리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5. 넥슨 전개발자 연봉 상승 - 신사업에 대한 징후, 빗썸 인수설 -> 게임 산업의 금융진출
6. 기존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전쟁 - 플랫폼 전쟁은 더 큰 개방성과 먼저 결합하는 쪽이 유리하다. 이전에 애플과 안드로이드+(마이크로소프트) 싸움에서 그랬듯.
7. 현재 주시시장의 유동성은 노동시장(or 건물 등)에서 이전되어 온 자금들이다.